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2025

AUTUMN



김성은 교수 · 소화기내과



Care & Love

원 고 모 집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환우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사연은 병원 소식지에 싣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분량 : A4 2~3매의 원고

○ 사연 보내실 곳 : pr3700@daum.net 또는 고객센터(3동1층)

독 자 Q U I Z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병원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원보에 모든 정답이 있는 답이 보이는 **퀴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답을 맞으신 분들 중 3명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응답기간 : 2025년 12월 5일(금)까지

추첨결과 : 2025년 12월 중



지금 바로 카메라를 열어
Quiz 정답을 남겨주세요

독자퀴즈 바로가기



Contents

Kosin Spirit

- 04 자기 발견 김영대 목사 • 원목실장
- 06 선교사님들과의 뜻깊은 만남... 문형환 교수 • 간담도혜장외과 • 이식외과
- 08 섬김으로 물든 7일, 태국 의료선교 이야기 박산하 • 간호대학 2학년

Medical Essay

- 10 건강한 삶을 위한 첫 걸음, 정기 건강검진의 가치
김성은 교수 • 소화기내과(건강증진센터장)
- 12 당뇨병 있어도 콩팥은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신호식 교수 • 신장내과
- 16 치매로 오해받는 질환, 뇌수두증을 아시나요 심용우 교수 • 신경외과
- 18 배움에는 끝이 없다 정경원 교수 • 소화기내과

Culture & Life

- 22 미국에서 온 편지 #5 최소윤 교수 • 소아청소년과
- 26 여자의 변신은 무죄 김나현
- 29 유월 풍경 김희자 • 수필작가
- 32 가을로 가는 길... 능동산과 배내봉 노경만 산 • 여행작가

Kosin Inside

- 36 네 번째 우.부.소. 황정규 사원 • 임상시험센터
- 40 New face, 처음의 열정으로 고신에서의 꿈을 펼치다
- 43 우리 병원 친절직원
- 44 칭찬릴레이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서'
- 46 + KOSin 사랑in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 47 환자경험평가
- 48 진료를 시작합니다
- 50 진료시간표



2025. AUTUMN

발행인 최종순 | 발행일 2025년 9월 | 편집인 이형석

발행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홍보실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장기려로) 262 | 051)990-3700~2 | www.kosinmed.or.kr

개원일 1951. 6. 21

디자인·인쇄 현대출판인쇄사 051)464-5667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용한 읽을거리와 건강정보를 담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보는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오니 주위 분들과 함께 읽으시길 바라며, 홈페이지(www.kosinmed.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원보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책에 관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대외협력홍보실(051-990-3700~2)로 연락해 주십시오.

자기 발견

글 | 김영대 목사 • 원목실장

끊임없는 경쟁과 빠른 변화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나는 누구인가', '진정 원하는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틈도 없이 흘러가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발견은 그 어느 주제보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기 발견이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면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며 자신의 가치와 목적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나를 아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과 진실한 대면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화해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는 병의 고통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몸과 마음의 한계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아픔으로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자신을 바로 알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품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무한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인간의 참 실상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기 발견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 과거의 수치와 아픔들이 우리를 왜곡되게 인식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인 것을 수용할 때 미래의 자아상을 향해 전진할 힘을 얻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정죄하는 자기, 또는 사람들이 인식할 것이라 예상하는 자기에 머무는 경우입니다. **객관적인 자기의 실체를 알 때 자**





존감을 가질 수 있고 자기를 존중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인-아이’(Adult-Child)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자기 발견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참된 자신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지음 받았으며 본래 완전하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으로 왜곡되고 어그러진 자아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습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늘 불안과 불안정 속에 살게 되었으며 자기 파괴적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발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엡 1:4-5)”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와 허물에 대한 심판으로 사망이 선고되어도 마땅한 인간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엡 1:5)”고 말합니다.

자기 발견은 나 스스로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뜻, 계획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함으로써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됨을 확신하게 되고 인간의 운명을 벗어난 진정한 자유와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병원에서의 치유와 회복은 단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기 발견과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정체성인 하나님의 아들 됨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확신할 때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도 더욱 깊어지리라 확신합니다. ✝**

선교사님들과의 뜻깊은 만남... 〈고신선교사대회 의료지원을 다녀와서〉

글 | 문형환 교수 · 간담도췌장외과·이식외과

연례 행사쯤으로 생각했다. 가끔 교단 행사가 있으면 병원 의료진 몇 명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일정은 그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선교 70주년을 기념하여, 오랜 시간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된 것이었다.

운전의 수고를 덜어드릴 겸 많은 짐을 싣고 차를 몰고 가시는 옥철호 교수님과 함께 대회장으로 향했다. 기차를 타고 온 다른 팀원들도 도착하여 장비를 옮기고, 숙소 일부 공간을 건강 상담센터로 세팅하였다. 이번 일정에서는 장비와 건강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두었고, 몇몇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사전 상담을 위한 자료 검토와 안내 역할을 맡았다.

김구상 교수님, 정성의 교수님, 좌선영 선생님 등은 유방과 갑상선 건강에 대한 상담을 담당했고, 옥철호 교수님과 간호대 이하준, 제성우, 하선미 학생은 심혈관 건강, 골격 성장 등에 대한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안내했다. 정현, 홍은영 수간호사님은 접수와 안내책자 설명, 박유나 학생은 건강 설문조사, 왕성진 선생님은 상담 내용 정리에 협조하였고, 나는 복부 건강에 대한 기본 상담을 맡았다.

접수 데스크 앞에서 혈압을 재며 이름, 나이 등을 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았다. 상담을 앞두고는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선교지에도 몇 번 방문한지라 익히 알고 있던 한 선교사님을 보았는데 세월의 흐름 속에 쇠약해지고 약간 구부러진 뒷모습을 보며 조금은 슬프기도 했다. 건강상담을 하면서 선교사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선교지 사역이 어떤지 또 자신의 지나온 건강 상태는 어떤지 등을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다. 현지 환경과 음식에 적응하다보니 선교사님의 체형과 건강상태도 선교지 사람들을 닮아가는 듯했다.

뜻밖의 만남들이 있었다. 첫 번째로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누나의 이웃사촌인 선교사님이었고, 대학 시절 다른 간호대학 CCC 선배였던 순장님은 현재 모로코에서 사역 중이셨다. 교회 대학부 담당 집사님으로 카자흐스탄 선교를 나가신 후 소식을 몰랐던 선교사님은 대학졸업 이후 처음 보았다. 또 고등학교 시절 부목사님이셨던 목사님과도 스치듯 인사를 나눴다. 그 외에도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바쁜 현장에서 직접 대화는 못했지만, 같은 현장에 계시다는 사실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둘째 날 새벽기도회에는 일찍 눈이 떠져 참석할 수 있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선교사님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여기 모인 분들이 한 공동체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시편 88편 말씀은 마치 선교지에서 겪는 어려움과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탄식하는 선교사님들의 외침의 기도 같았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잊음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시편 88: 10-13

선교사님 건강 설문조사 결과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의료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선교지의 병원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 항목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 프로그램이었고, 그다음은 온라인을 통한 건강 상담 서비스였다.

이에 대해 우리 병원의 옥철호 교수님을 중심으로 이미 몇 차례 시도와 논의가 있었고,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 또한 예상보다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계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만, 이번 상담에서 제공한 복부와 경동맥 관련 분야는 나 개인적으로 더 전문성을 갖추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 기회에는 실력도 더 준비해서 다양한 분야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의료로 섬기고 싶다. 



문형환 교수 | 간담도췌장외과·이식외과

전문진료분야 |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희귀질환 클리닉 : 매주 수요일 오후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오후			외래	외래	

태국 의료선교 후기

섬김으로 물든 7일, 태국 의료선교 이야기

글 | 박산하 · 간호대학 2학년

선교영상
바로가기

선교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확신에서였습니다.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땅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해외 의료 선교를 다녀온 동기들과 선배들의 간증을 들으며, 그곳이 제 신앙생활의 전환점이자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특히 2년 전 태국에서 맺은 작은 선교의 열매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제 발걸음을 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난생처음 떠나는 해외 의료 선교였기에 설렘만큼이나 두려움과 걱정도 컸습니다. 과연 제가 현장에서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끊임없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선교 전 매주 정기적으로 모인 준비 모임

에서 선생님들께서 선교의 전반적인 흐름과 문화적 유의점, 의료 사역의 실제적인 방법까지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팀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점차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주 2~3회 진행된 공연 연습 시간에도 단순히 무대를 완성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나누며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참 따뜻하고 의미 깊었습니다.

출발 당일, 공항에 모였을 때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비행에 문제가 생겨 일정대로 출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어려움이 오다니...'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우리 팀은 두려움보다는 기도로 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공항 한편에 모여 앉아 왜 이 사역에 함께하게 되었는지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이들이 서로의 사연과 믿음의 여정을 듣고 공감하며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고, 이 여정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무사히 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서의 매일은 참으로 분주하고, 동시에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의료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는 가운데 매 순간이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특히 미얀마 난민 마을에서의 어린이 사역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룸마이 교회에서 의료 사역을 마친 후, 국경을 넘어 미얀마 쿠데타 이후 정착하게 된 난민 가족들이 모여 있는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흠바닥 위의 작은 광장에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을 초롱초롱한 눈으로 집중해서 듣는 아이들의 모습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울동을 하고 풍선을 나누어 줄 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가족들의 따뜻한 눈빛을 통해 저는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들의 모습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고, 돌아온 지금도 그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만듭니다.

사역의 현장은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 안에서 드러난 팀원들의 사랑과 헌신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드는 가운데서도 의료진 선생님들께서는 한 명 한 명을 향한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 한마디를 잊지 않으셨고, 그 모습은 곁에서 지켜보는 저에게도 큰 배움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을 다해 환자들에게 밝은 인사를 건네고,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열심히 섬겼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시거나, "Thank you"를 반복하며 두 손을

모아 인사하셨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마음이 울컥했고, 이곳이 야말로 복음의 현장이며 사랑의 통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교에서 가장 큰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팀원들 중 일부가 피로와 환경 변화로 인해 몸이 아프고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도하며 돌보는 모습은 단순한 팀워크를 넘어선 진정한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조별 큐티 시간에 출애굽기 17장 8-16절 말씀을 묵상하며 아픈 팀원들을 위해 또 한 번 간절히 기도했던 장면은 공동체의 힘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간호사가 되었을 때에도 내 동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간호사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이번 태국 의료 선교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고, 더 깊이 배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안전하게 인도하셨고, 한 팀으로 모인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셨음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함께 웃고 때론 눈물 흘리며 기도한 시간들은 제 신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하지만, 그곳에서의 기억과 은혜는 제 마음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간호사로서 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환자와 동료를 향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날마다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태국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함께했던 귀한 팀원들 모두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 정기 건강검진의 가치

글 | 김성은 교수 · 소화기내과 (건강증진센터 센터장)



Q1 교수님, 늦었지만 건강증진센터 센터장으로 새롭게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취임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건강증진센터 센터장을 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센터를 잘 이끌어 주셨던 존경하는 역대 센터장님들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저 역시 그 분들처럼 건강증진센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한 이후로 이 자리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2 정기 건강검진은 왜 중요한가요? 실제 진료 현장에서 경험하신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질병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본인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암이나 대사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프다고 느끼기 전에 미리 발견하는 것’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얼마 전, 특별한 불편함이 없던 50대 검진자분께서 정기 건강검진으로 위 내시경을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조기 위암이 발견되었고, 다행히 내시경 절제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환자분께서 “검진이 제 생명을 살렸어요”라고 말씀하실 때, 제 마음도 함께 따뜻해지고 감사함을 느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Q3 40대 이상 직장인이나 병원 직원들도 건강검진을 자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40대 이상 직장인은 자신의 건강을 챙길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병원 교직원분들은 남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뒷전이 되기 쉽지요. 하지만 가족과 환자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스스로를 위해 건강을 우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40대는 우리 몸에 여러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건강 이상이 숨어 있을 수 있기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미리 위험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루 정도의 시간을 내어 1년 365일 중 단 하루, 나 자신

을 위한 건강 투자를 꼭 실천해 주세요.

“나중에”라는 말 대신, 지금 바로 내 몸을 살피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건강 증진센터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되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Q4 우리 병원 건강증진센터만의 특징이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건강증진센터는 대학병원으로서의 깊이 있는 전문성과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환자 중심의 따뜻한 돌봄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각 진료과의 전문 교수진이 직접 검진 결과를 세심하게 판독하며, 최신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종합적인 소견을 제공합니다.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진료과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연계되어, 빠른 진료와 치료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검사 장비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검진이 이루어지며, 친절한 코디네이터가 처음 방문하는 분들께도 편안하고 체계적인 안내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센터는 기독교 대학병원으로서 ‘이웃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환자 한 분 한 분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돌보는 따뜻한 검진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이처럼 높은 의료 전문성과 최상의 진료 환경,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함께하는 돌봄이 우리 병원 건강증진센터만의 특별한 장점이라 자부합니다.

Q5 마지막으로 병원 소식을 읽는 환자, 보호자, 교직원분들께 전하고 싶은 건강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지키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꼭 필요한 과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히 지키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 영상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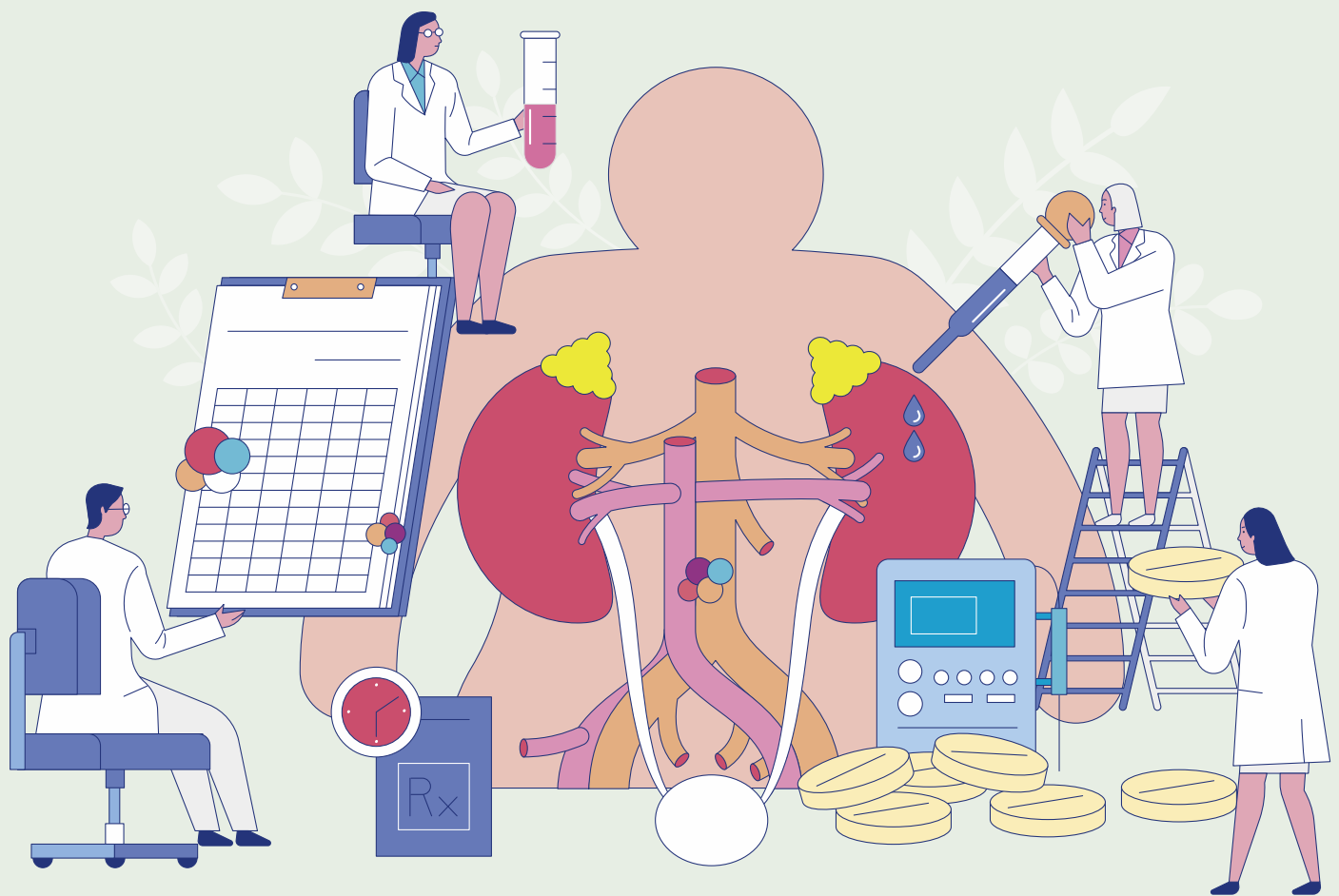
김성은 교수 | 소화기내과

전문진료분야 | 위, 식도, 십이지장의 용종(선종), 종양의 내시경적 시술, 식도이완불능증, 내시경 근절개술(POEM), 위식도역류질환,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 관련질환(위말트림프종포함), 위루술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시술	외래	시술	시술	시술
오후	시술	연구	외래	외래	연구

당뇨병 있어도 콩팥은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글 | 신호식 교수 · 신장내과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지는 만성 질환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장기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콩팥은 당뇨병으로 인해 손상되기 쉬운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콩팥 손상은 '당뇨병콩팥병'이라고 불리며,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서서히 진행되어 만성콩팥병이나 심할 경우 투석이 필요한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한다면 콩팥 건강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콩팥병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변화의 원리

당뇨병콩팥병은 고혈당으로 인해 콩팥의 혈관이 손상되면서 시작됩니다. 혈당이 높으면 콩팥의 모세혈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염증, 산화 스트레스, 섬유화 반응이 유발됩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 안에 있는 사구체라는 여과 장치가 손상되고, 단백뇨(알부민뇨)가 발생하며 점점 여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혈압이 상승하면 이러한 손상이 더 가속화됩니다.

당뇨병콩팥병의 선별검사

당뇨병콩팥병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선별검사로는 '소변 알부민/크레아티닌 비율(UACR)' 검사와 '추정 사구체여과율(eGFR)' 검사가 있습니다. 소변검사를 통해 미세한 단백질이 배출되는지 확인하고, 혈액검사를 통해 콩팥의 여과 기능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1년에 한 번 이상 꾸준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콩팥병의 전통적 치료

기본적인 치료 원칙은 혈당과 혈압을 철저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저염식 등), 규칙적인 운동(일주일 150분 이상 운동 등), 금연, 체중 조절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입니다. 또한 지질 조절과 함께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 억제제(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 계열의 혈압약)를 통해 콩팥 기능을 보호하는 약물치료가 시행됩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치료는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콩팥병의 새로운 4가지 치료

최근에는 당뇨병콩팥병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약제들이 등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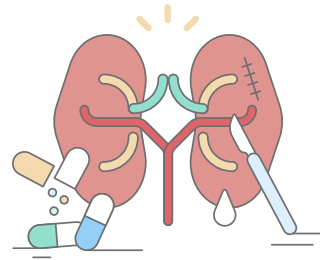
- ①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 억제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 계열의 혈압약): 콩팥 안의 고혈압을 낮춰주는 기존 치료법으로 여전히 기본입니다.
- ② 제2형 나트륨-포도당 운반체 억제제: 혈당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을 낮추는 동시에 콩팥 보호 및 심혈관 위험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③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 혈당 조절과 함께 체중 감소,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어 콩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④ 피네레논(Finerenone): 염증과 섬유화를 억제하는 비스테로이드성 미네랄코르티코이드 수용체 차단제로, 콩팥과 심장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이러한 약제들은 질병의 다양한 기전에 작용하여 콩팥 손상을 늦추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어도 충분히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입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최신 치료법을 활용한다면 콩팥병의 진행을 막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평소 소에 건강한 식사와 운동, 꾸준한 혈압과 혈당 관리가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뇨병콩팥병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경우 신장내과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하여 개개인에 맞는 정확한 평가와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콩팥을 지키는 일은 곧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신호식 교수 | 신장내과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신장내과 교수
-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장기이식연구소 소장
- 대한신장학회 투석이사
- 대한신장학회 유전신질환연구회 회장
- 사단법인 생명잇기 총무이사



전문진료분야 |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 진료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특수클리닉
오후	외래		외래	외래	

사랑으로 생명을 잇다 생명잇기를 통한 복음적 나눔의 실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신장내과에서 진료 중인 신호식 교수이며, 2025년 3월부터 사단법인 생명잇기의 총무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사역인 '생명잇기'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생명잇기는 2009년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장기 및 조직기증의 인식 확산과 기증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단지 의학적인 활동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마태복음 22:39)을 따라 살아갑니다. 장기기증은 바로 이 사랑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생명을 나누겠다는 결단은, 가장 깊은 믿음의 표현이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생명잇기는 학교, 교회, 지역사회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증자와 유가족을 위한 예우 활동도 정성스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선물받은 이식 환자들이 감사와 책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매일같이 생명의 한계와 마주합니다. 투석으로 버티는 생명, 기증을 기다리는 간절한 눈빛들. 그들에게 장기기증은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받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누군가의 조용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기증은 결코 죽음이 아닌, 또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저는 생명잇기의 사역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야 할 현대의 선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 자체로 거룩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증은 결코 강요할 수 없는 일이지만, 복음적 시각에서 볼 때 '기꺼이 내어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닮은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기증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생명잇기는 그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는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생명잇기의 공식 홈페이지(<https://www.vitalink.or.kr/>)를 통해 여러분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후원,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생명나눔이 단지 생존의 연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장기기증이라는 통로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여러분도 이 사역에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증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이식 환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잇기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며,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

치매로 오해받는 질환, 뇌수두증을 아시나요?

글 | 심용우 교수 · 신경외과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국내 통계에 따르면, 노인성 질환 중 진단을 받았을 때 환자나 보호자가 가장 걱정하는 질병은 치매였고, 이는 암보다도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치매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양 부담과 치료비용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지장애가 곧바로 '치매'는 아닙니다. 실제로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다른 질환들도 있으며, 그중에는 적절한 치료로 호전이 기대되는 질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뇌수두증입니다.



뇌수두증이란 무엇인가요?

뇌수두증은 노화와 함께 뇌의 크기나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뇌척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행장애, 배뇨장애, 인지장애 세 가지가 주요 증상으로 꼽힙니다.

보행장애는 걸음걸이가 짧아지고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불안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배뇨장애는 요의를 느낀 후 화장실에 가기 전에 소변을 참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장애는 치매와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어 감별이 필요합니다.



진단과 감별이 중요한 이유

뇌수두증은 다른 질환들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영상 검사(예: 뇌 MRI) 및 신경학적 평가를 통해 감별 진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치매로 오인된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뇌수두증이 의심될 경우, 진단 보조 수단으로 뇌척수액 배액검사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검사는 요추 부위에서 일정량의 뇌척수액을 배출하고, 이후 증상의 변화 여부를 관찰하여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단, 이 검사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필요할 경우에 시행되며,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뇌수두증의 치료와 주의사항

뇌수두증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침이 결정됩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 수술적 치료(예: 셉트 수술)가 고려되기도 합니다. 이는 뇌척수액이 적절히 배출될 수 있도록 관을 삽입하여 뇌압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상태에 따라 비수술적 관리나 경과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보행장애나 인지장애 증상에서 일상 생활의 질이 개선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는 개별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매로 단정 짓기 전에 ‘다른 원인’도 생각해 보세요

고령의 환자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났을 때,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치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뇌수두증을 비롯해 치료 가능한 인지장애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수두증에 대한 관심은 아직 높지 않은 편이지만, 최근에는 관련 학회와 연구 모임이 활발히 활동하며, 진단과 치료 방법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무리하며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단순히 질병 그 자체만이 아니라, 삶의 질과 독립적인 생활 유지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인지장애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반드시 치매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조기에 진료를 통해 감별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삶이 보다 건강하고 존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심용우 교수 | 신경외과

전문진료분야 | 뇌혈관질환, 뇌종양, 뇌혈관중재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외래
오후			외래		외래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내시경 봉합술의 시대

글 | 정경원 교수 · 소화기내과



정경원 교수
소화기내과

치료 내시경 분야에서 환자 진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해온 저는, 끊임없는 배움의 여정 속에서 또 한 번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미국 버지니아대학교병원에서 연수를 다녀오며, 치료 내시경 분야의 최신 기술들을 직접 보고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저는 내시경적 봉합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현지에서 시행 중인 특수 내시경 봉합기술인 Helical Tack Suture System과 Endoscopic Suturing System에 대한 효과와 최신 트렌드를 연구할 수 있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5월, 소화기내과 분야 최대 국제학회인 “미국 소화기병 주간(Digestive Disease Week, DDW)”에서 포스터 발표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돌아온 후, 이러한 기술을 익히고도 실질적으로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던 내시경 봉합 기계가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열린 국내 최대의 소화기 내시경 학회인 IDEN(International Digestive Endoscopy Network)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예전부터 교류해온 일본 오사카 국제암센터의 노리아 우에도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에도 선생님은 위 상피하 종양에 대한 내시경 전층 절제술(EFTR, Endoscopic Full Thickness Resection) 후에 적용하는 새로운 내시경 봉합술을 발표하였습니다.

EFTR은 병변의 전층을 절제하는 고난이도 내시경 시술로, 위장 내 상피하 병변 제거에 특히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발표된 봉합술은 “ROLM(Reopenable Clip-over-the-Line Method)”이라는 기술로, 나일론 실과 내시경 클립을 이용해 시행되며, 현재 국내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구들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에서 배운 봉합기계의 도입 지연으로 인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학회 중 우에도 선생님과 대화의 통해 일주일 후 유사한 증례를 직접 시술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참관하여 기술을 배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내시경 시술 보조 인력이 주로 간호사인 반면, 일본은 내시경 전임의가 주로 보조를 맡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저뿐 아니라 내시경실 간호사인 김신건, 정현주 선생님도 함께 초청장을 받아 2025년 6월 19일 오사카 국제암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시술 전 단계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실제 수술실에 입장해 직접 시술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암 병변이나 위장관 기질종양 등을 최소 침습적으로 제거하는 데 있어 이 기술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시술 과정을 보며 궁금한 점을 즉시 질문하고 토의할 수 있었기에, 학회나 논문으로 접하는 지식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내시경실 간호사 선생님들도 시술 과정을 직접 보고 이해하면서, 향후 본원에서 이러한 시술을 시행할 경우 더 나은 팀워크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술이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본원 소화기내시경센터에서 시술 전문 간호사와 함께 외국 내시경 센터를 공식 방문한 첫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준비하며, “내시경 시술은 의사 혼자만의 역량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술 간호사와의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번 기회는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일본 연수에 동행한 김신건, 정현주 간호사 두 분은, “의료 기술의 발전 방향과 환자 중심의 치료 방식에 대해 큰 통찰을 얻었고, 이를 우리 병원 내시경실의 실무와 시스템 개선에 적용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오사카 국제암센터는 일본을 대표하는 암 전문 기관답게 내시경 치료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위장관 외과, 대장항문외과, 흉부외과 등과의 긴밀한 협진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내시경실은 최신 장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환자 안전을 위한 철저한 위생 관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최초로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을 시행하고, 다양한 종양에 대한 치료 내시경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진은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기관 방문을 통해 최신 지견을 접하고,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앞서 2018년, 2주간 오사카 국제암센터에서 상부 위장관 치료 내시경 연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본원에서 조기 식도암에 대한 내시경 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는 국제 다기관 공동 연구를 통해 치료 내시경 중 에피네프린 혼합 용액 사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연구 결과를 2023년 미국 소화기병 주간 학회에서 직접 구연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소화기내과는 지속적인 학술 교류와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통해 내시경 치료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며,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주
책임간호사
내시경검사실

2025년 6월 19일, 저는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오사카 국제암센터 내시경실을 정경원 교수님과 함께 견학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평소 내시경적 시술의 대가이신 노리야 우에다 교수님의 치료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 이번 견학은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오사카 국제암센터는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암 전문 의료기관으로, 특히 내시경 검사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견학 첫날, 내시경실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시설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첨단 내시경 장비와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이었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위암, 대장암 조기 발견에 필수적인 검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서는 최신행 내시경 장비를 통해 미세한 병변까지 정말하게 진단하며 정확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검사 중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과 심리적 안정 제공에 힘쓰고 있었으며, 세계적인 병원답게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지원도 일부 가능해 외국인 환자들에게도 배려 깊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고신에서도 이러한 선진 의료기술이 더 널리 보급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견학을 통해 서로의 앞선 기술을 공유하고 배운다면, 우리 고신의 내시경실 또한 세계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관련 분야의 공부에 더욱 힘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견학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정경원 교수님과 소화기내과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야와 지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미국에서 온 편지 #5

글 | 최소윤 교수 · 소아청소년과



안녕하세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소화기영양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최소윤입니다.

저는 올해 3월부터 해외 연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Orange County)에 위치한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UCI) Medical Center 소아청소년과와 협력하여, 인근에 있는 어린이 전문병원인 Children's Hospital of Orange County(CHOC)의 대장항문분과(Colorectal Department)에서 임상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HOC 병원 내외부 전경: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소아 친화적 인테리어와 마스코트 'Choco the Bear'!

오렌지카운티는 미국 서부 남부 지역에 위치하여 연중 따뜻한 기후와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역답게, 이곳의 의료도 포괄적이고 다문화적인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CHOC은 남가주 지역에서 가장 큰 어린이병원 중 하나로, 소아 진료에 특화된 각 분야 전문의들이 모여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Colorectal 팀은 소아소화기과 전문의(Pediatric Gastroenterologist), 소아외과 전문의(Pediatric Surgeon), 임상심리사(Psychologist),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 외래 간호사(Registered Nurse), 상처·장루 전문 간호사(WOCN), 영양사(Clinical Dietitian)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외래에서는 한 명의 환자를 이들 다학제 팀이 함께 30분 이상 진료하며,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하고 논의하여 환자 중심의 통합적 진료를 하고 있는 점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CHOC은 남가주 대부분의 소아 응급수술을 전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365일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신속한 진료를 위한 인력과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CHOC Colorectal Clinic의 다학제 팀: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이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치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료뿐만 아니라 활발한 임상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HOC는 미국 내 여러 어린이 병원들과 함께 Pediatric Colorectal and Pelvic Learning Consortium (PCPLC)이라는 다기관 연구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Pediatric Health Information System (PHI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표준화된 진료 청구 기반의 대규모 임상 자료에도 접근할 수 있어, 정량적이고 구조화된 데이터 분석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연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지금까지 총 8개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이 중 일부는 IRB 승인을 받아 현재 본격적인 자료 수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연구팀의 일원으로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참관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환자 및 보호자들과 만나 설문과 임상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어 쉽지 않은 순간도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이 연구에 진심으로 응답하고 적극 협조해 주는 모습을 통해, 의사-환자 간 소통은 언어를 넘어서는 공감과 신뢰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데이터 수집을 넘어, 환자 중심 연구의 본질을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단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과 협업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도 저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연구 회의에는 매주 소아소화기 의사, 소아외과 의사, 전문간호사, 외래간호사 등의 진료팀과 연구 코디네이터, 통계 전문가, 통계학 교수 등 연구지원팀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 설계 단계부터 데이터 해석, 발표 준비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 구조적인 연구 지원 시스템은 연구의 깊이와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이렇게 얻어진 결과들은 올가을과 겨울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North American Society for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and Nutrition (NASPGHAN) 과 Pediatric Colorectal and Pelvic Learning Consortium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개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다기관 연구들이 떠올라 구상하게 되었고, 국내 여러 대학병원 교수님들께 공동 연구로 제안하여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료 환경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며 진행 중입니다.

CHOC에서의 시간은 단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병원의 진료 시스템을 되돌아 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환자 중심의 진료, 다학제적 협업, 체계적인 연구 문화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는 희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기회를 허락해주신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박무인 학장님과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최종순 병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의 인력 부족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쾌히 해외 연수를 허락해주신 이정현 과장님을 비롯한 소아청소년과 교수님들, 그리고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소아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을 정성껏 진료해주는 소화기내과 문원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자리를 비운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기 힘든 불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이 보고, 배우고, 연구하며, 한국으로 돌아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진료, 연구, 교육 등 여러 면에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따뜻한 응원에 감사드리며, 다시 뵈 날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소윤 교수 | 소아청소년과

+ 전문진료분야

소아소화기영양분과 (소아소화기질환(위장관, 간담체장), 소아염증성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영양 질환, 비만, 저체중, 소아위장관내시경)

독자 에세이 #03

여자의 변신은 무죄

글 | 김나현



2년마다 받는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재검을 요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재검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재검을 받았다. 종양의 모양이 좋지 않다는 말에 그제야 걱정이 몰려왔다. 조직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마조마하고 우울하고 불안했던 그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결과는 상피내암이었다. 유방외과 김구상 교수님께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있었던 찝막한 에피소드를 전해본다.

고신대복음병원 유방외과 첫 진료가 예약되어 있던 날이었다. 외출하는 여느 날과 같이 화장대 앞에 다소곳하게 앉아 로봇 3단 변신하듯 정성스레 화장을 한다.

에어쿠션으로 피부 결을 곱게 만들고, 눈썹도 그리고, 예쁘게 눈 화장도 하고..

그런 내 모습을 옆에 앉아 지켜보고 있던 딸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엄마, 병원 가는데 화장은 왜 해요?” 하고 묻는다.

나는 웃으며 “아프다고 화장도 안하고 께죄죄하게 병원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 말했더니,

“그게 뭐 어때요? 의사 선생님도 환자가 아프니까 화장할 힘이 없나보다. 생각하겠죠.” 그러ندا.

딸 아이 말에 웃음이 난다.

“아 넵뒤~ 엄마는 화장하고 가는 게 편하니까 할래” 라고 했더니

딸도 같이 웃으면서 말한다.

“아니~ 어차피 마스크로 다 가릴 거면서 뭐 하러 화장하냐고요~~”

“아, 눈이라도 이쁘게 하지 뭐~ㅎㅎ”

그래도 딸은 아픈 엄마가 병원가면서도 저렇게 화장하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한참을 쳐다보면서 별거 아닌 걸로도 감 놔라 배 놔라 한다.

그날 그렇게 김구상 교수님을 찾아뵙고 첫 진료를 봤다. 이후로 MRI를 찍고, 결과 나오는 날 또 한 번 교수님 진료예약 날짜에 맞춰 진료를 받았고 수술날짜를 잡게 되었다.

수술일이 다가와 하루 전 날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수술 끝나고 나면 아픈 엄마 병간호를 해주겠다고 딸이 보호자가 되어 함께 병실에 들어왔다

이것저것 챙겨온 짐을 병실 캐비닛에 하나씩 정리하는데 스킨, 로션을 챙겨온 화장품 파우치를 딸이 열어 보더니

“엄마~ 눈썹 그리는 거는 왜 들고 왔어요?” 한다.

“응 눈썹도 없는데 좀 그려야 될 거 아이가~”

“환자가 눈썹 좀 없으면 뭐 어때요~” 또 딸아이 말에 웃음이 난다.

“엄마가 손을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살짝 그리지 뭐”

“환자가 눈썹 그리고 있는 것도 웃기잖아요~ㅎㅎ”

“아, 뭐가 웃기노~~ㅎㅎ 니 말이 더 웃긴다ㅎㅎ”

딸과 시답잖은 대화를 주고받는다.

“에이 이럴 줄 알았음 진즉 눈썹문신이나 할 걸~” 했더니

딸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엄마가 눈썹에나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당최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다.

수술 당일 아침, 전날부터 금식이라 아침식사도 거른 채 병실에 딸린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교수님께서 회진으로 병실로 들어오신다.

나는 양치하다 깜짝 놀라 허겁지겁 입 안 가득 고인 치약거품을 세면대에 뱉고 입안을 행구어 낸다. 간밤에 자기 키보다 작은 간이침대에서 다리도 못 뻗고 쪽잠을 잔 딸이 아침이 되어 환자 침대에 올라가 돌아누워서 곤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교수님이 다가간다.

“아직도 자고 있어요~~??” 하며 교수님이 누워자는 딸 아이에게 말을 건다.

딸은 자다가 놀래서 벌떡 일어나고 놀란 딸아이 모습이 딱 봐도 환자는 아닌지라 교수님도 놀라시고, 나는 나대로 휴지로 입을 닦으며

“교수님~전데요~ㅎㅎㅎ”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교수님은 또 놀라시고, 순간 병실에 있던 모두가 한바탕 웃었다.

교수님께서 나는 전혀 못 알아보시고 누워있는 딸이 환자인 줄 아셨다 한다.

“오늘 수술 잘되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수술 잘 받으시면 됩니다.” 라며 위로해 주신다.

“네~~꼭 잘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고 교수님은 나중에 보자 하며 다른 병실로 회진을 가셨다.

딸과 나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겨 서로 눈을 마주치고 깔깔깔 넘어가며 한참을 웃었다.

쌤에~~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화장을 다 지운 댄 얼굴이지만 그래도 두 번이나 제 얼굴 봤다 아닙니까~~

뭐~~마스크까지 벗었으니 그 때 봤던 그 환자가 이 여자 분인가? 아닌데~ 이 분은 누구지? 보호자인가? 하고 긴가민가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환자복 입고 쌤한테 반갑게 인사하는 환자를 우찌 그리 몬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까?

수술 날은 간호사들이 화장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몰래 눈 화장이라도 살짝 하고 있을 걸 그랬나보다.

“조이(딸 이름)야~ 엄마가 뭐라드노~ 눈썹이라도 그리고 있는다쨌제~~ 눈썹이라도 그렸으면 쌤이 기억을 더듬어 그래도 쯔메 안 알아보셨겠나~ 엄마가 무슨 모나리자도 아이고~”

딸이 그린다.

“엄마~ 쌤은 그런거 하나도 신경 안써요~”

그렇게 그날 유방암 상피내암인데도 전 절제 수술로 거의 다섯 시간에 걸쳐 성형외과와 협진으로 복원수술까지 함께 받았다.

원래는 타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수술 예약을 완료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고신대복음병원을 찾게 되어 진료 받은 첫째 날, 권위적일 것이라 상상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친절하게 병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한 번의 진료에서 신뢰와 따뜻함까지 느껴진 교수님의 진료에 감동하여 고신대복음병원에서 수술을 받을까 말까하는 갈등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진료를 받고는 고신대복음병원에서 수술 받을 것을 결정했다.

“저 교수님께 수술 받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바쁜 일정에도 감사하게도 빠른 날짜를 잡아주셔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교수님의 로봇수술 제안으로 전 절제인 데도 정면에서는 표도 안날 정도로 수술부위도 작고 회복도 빨랐다.

수술 후 입원생활로 화장도 못하고, 항생제 부작용으로 온몸이 퉁퉁 부어있었는데 교수님은 부은 내 손을 보시고는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라고 환자를 위로해 주셨던 교수님의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

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듯하다.

교수님께 수술을 받겠다고 결정을 내렸던 그때의 나에게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칭찬을 한다.

교수님~ 좀 몬 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술 잘 해주셔서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진료 받으러가는 날, 혹시라도 맨 얼굴로 가게 되면 가슴에 명찰 하나 달고 갈게요. 

오늘은 오전/오후 120명의 외래진료를 하루 종일 봤네요,
120명의 사연을 접하며 웃기도 하고 슬퍼도 하고 함께 축하도 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하는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글을 읽고는 저도 얼마나 놀랐던지 그날 병실에서 따님의 등을 치던 게 생생하네요.
어찌 보면 일생일대의 힘든 고난의 시간일텐데 유쾌한 터치로 그 시간들을 담아내는 글을 보며 빙그레 미소 지어지면서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잘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동료나 후배 환자 분들에게 경험을 나누며 힘을 주는 멋진 환자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김구상 교수 올림-

독 자 에 세 이 원 고 모 집

소중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몸과 마음을 위로 받고 치유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유월풍경

글 | 김희자 수필작가



바람부터 다르다. 시원한 바람이 비를 품고 있다. 노목의 가지에 날아든 새가
고요한 공중을 깬다. 둥지에서 막 나온 새끼 제비가 무리를 지어 위아래로 한창
비행 연습 중이다. 바위 옆 언덕에 핀 수국이 새색시의 볼처럼 탐스럽다. 멀리
있는 바다 위에 회색 구름이 몰려온다.

빠꼭빠꼭! 앞산과 뒷산에서 빠꾸기의 합창이 절창이다. 때는 바야흐로 모내
기철이다. 너럭바위에서 전해지는 차고 거친 기운이 영덩이를 자극한다. 바다
위 소치섬은 말이 없고, 조업 중인 어부의 손이 분주하다. 이팝나무 바로 아래
엔 수년째 비어있는 집이 있다. 홀로 살던 친구 어머니께서 아들네 집으로 간 후
텅 비었다.

채찍질하지 않아도 하루하루는 잘도 간다. 너럭바위에 앉아 세월을 낚고 있
으니 '유수 같은 세월~'하며 아버지께서 즐겨 부르던 노래가 귓전에 맴을 돈다.
뿌연 대기 사이로 유월의 햇살이 비집고 나와 다랭이논에 내린다. 철 이른 더위
까지 찾아와 후텁지근하다. 그래도 땅은 향기롭고 가슴은 뜨겁다.

설흘산 자락이 흘러내린 언덕에 모내기가 한창이다. 다랭이논에 모내기가 시작
된 지 보름이 넘었다. 벌써 끝나야 할 모내기이지만, 열악한 터전이라 일이 더
디기만 하다. 도와줄 처지 또한 못 되니 무어라 할 말이 없다.

일손이라 해봐야 오륙십 대. 오빠, 동생들이다.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논
은 그나마 다행이다. 트랙터가 모를 심을 수 없는 다랭이논에는 부녀회원들이 손
수 모내기해야만 한다. 방수 바지에 긴 장화를 신은 아낙들의 뒷등 위에 구름 사
이로 나온 뒤흔별이 내리쬐다. 물은 부족하지, 습도까지 더해져 무더위로 논일
하는 사람들의 등이 흠뻑 젖었다. 터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매일 논으로 나왔다.
평지라면 농기계로 진즉 마무리했을 텐데 다랭이논의 특성상 그렇지 못하다. 저
들이 마음을 다해 모를 심는 것은 강인한 터 사랑 때문일 것이다.

“비가 와야 할 낀데…….”

이웃 마을에는 벌써 모내기가 끝났으며 장에 다녀온 어머니들은 애를 태웠다.
노쇠하여 일을 거들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탄성에 가슴이 아렸다.



물이 귀한 이곳에서 모내기하기란 쉽지 않다. 마을 뒤 저수지 보를 틀고 바다로 내려가는 개울물을 다 가두어도 층층이 있는 논에 물을 댈 수 없다. 그렇다고 하늘만 믿고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다. 마을 청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유월의 태양과 맞섰다. 밀짚모자를 쓰고 토시를 꺼도 뜨거운 태양과 맞서는 청년들의 얼굴은 온통 구릿빛이다. 폭폭 찌는 날씨. 흐르는 땀도 땀이지만, 습기 찬 공기가 치덕치덕 몸을 휘감는다.

고생하는 남정네들을 위해 이장 사모님은 얼음과 콩을 갈아 얼음을 띄워 새참으로 내오고, 지난 칠월칠석에 시집온 새댁은 새신랑을 위해 수박 한 통을 들고 킁킁대며 들로 나왔다. 마음을 아는 건 이녁만 한 사람이 또 있을까. 안 해본 일을 하는 새신랑은 밤마다 끔찍 앓는다며 새댁이 안쓰러워했다.

사십 끝자락에 결혼한 새신랑은 농부의 아들이다. 결혼은 늦었지만, 새댁이 아무지고 목소리 난다. 요새 여인답지 않게 신랑의 고향에 터를 잡은 새댁의 모습을 보면 흐뭇하다. 이곳에서 몸을 갈고 살았던 그의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농사를 시키지 않았다. 농사를 짓는 게 얼마나 고된 줄 알기 때문이다. 이젠 팔순이 넘어 허드렛일만 거들 뿐이다.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아들이 터를 지킨다.

아버지를 이어 고향에 들어온 큰집 조카는 앞으로 마을을 이끌어 갈 사람이다. 마을 행정을 보는 사무장으로 마을의 발전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 십 년, 이십 년 후면 빈집이 많아질 터이고 터전을 지킬 사람은 이들뿐이다. 오십 대인 이들에게 희망을 건다. 꼭 이 터전을 지켜달라고.

서러움이 뚝뚝 흘러내릴 것 같은 산자락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 걸음마다 주름살이 깊어지는 그들은 지천명, 이순을 넘긴 사람들이다. 일흔을 넘긴 오빠도 있다. 어떻게든 모내기철을 넘기지 않으려고 용을 쓴다. 길을 트기 위해 풀을 베고, 트랙터로 논을 갈면 논두렁을 만든다. 그 모습을 보니 아련한 기억 속의 바람 한 줄기가 가슴을 파고든다.

다랑논을 일구며 산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는 모내기철. 하늘만 쳐다보며 농사짓는 사람들은 모내기하고 나서도 노심초사했다. 자기 논을 지키기 위해 물도랑 입구에 변을 싸놓기도 했다. 논에 들어갈 물꼬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비 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무거운 비옷을 걸치고 들로 나가셨다. 못자리에 물이 솟아 드는 걸 보시고 오면 만면에 웃음이 가득했다. 가뭄이 이어지던 어느 해에는 물꼬를 막는다, 튼다는 문제로 이웃 논 주인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아무리 인심이 좋아도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짓는 이곳 사람들에게겐 물이 우선이었다. 그것이 삶이었다.

초록 향기 물씬 나는 다랭이논 언덕에 무리 지어 망초꽃이 피었다. 살랑살랑 바람이 일자, 망초꽃 향기가 솔솔 날아와 코끝을 간질인다. 며칠 후면 장마가 시작된다고 한다. 들녘을 흠뻑 적실 장맛비를 기다리며 유월 풍경에 빠져 하늘을 본다. 

가을로 가는 길... 능동산과 배내봉

글 | 노경만 산 · 여행작가





능동산은 해발 983m로 밀양시 산내면과 울주군 상북면에 걸쳐 있는 산이다. 영남알프스의 산군에 속하며, 가지산을 내려온 낙동정맥의 기세가 중봉과 입석봉을 지나며 살짝 꺾여서 능동산에 이른다. 산세는 이곳에서 한줄기는 천황산-재약산으로 이어지고, 다른 한줄기는 배내고개로 내려갔다가 배내봉을 올라간다.

배내봉은 해발 966m로 울주군 상북면과 양산시 원동면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역시 영남알프스의 산군에 속한다. 낙동정맥은 여기를 거쳐 간월산-신불산-영축산으로 그 기세를 이어간다.

능동산과 배내봉은 영남알프스의 중심부 혹은 교차로 지점에 위치해 있어 배내고개를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산행을 즐길 수 있다. 가을이 다가오면 더욱 매력적이다. 능동산은 <하늘역새길> 중 4구간인 <단풍사색길>에 속해 있고, 배내봉은 5구간인 <달오름길>이 지나는 길목이라 만산홍엽의 단풍과 황금빛 일렁이는 역새의 물결을 함께 만끽할 수 있다. 그래서 머지않은 가을이 더욱 기다려지는 요즈음이다.

산행은 배내고개에서 시작한다. 배내고개까지 가는 길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KTX 울산역이나 언양 읍내 구언양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353번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버스가 자주 다니지는 않으니 미리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승용차를 이용한다면 배내고개 마루에 주차공간이 충분하니 원동의 배내골 방향이나 언양의 석남사 쪽이나 어디서든 가능하다. 밀양 얼음골에서 쇠점골을 통하여 능동산을 오를 수도 있다.



능동산

● 능동산 가는 길

배내고개-능동산 정상-쇠점골약수터-능동2봉-헬기장 전망터-임도를 따라 원점회귀

배내고개에 서니 가을로 가는 길이 더욱 선명하다.

주차장 끝에서 연결되는 임도 옆 나무계단으로 능동산행이 시작된다. 정상에 다 오를 때까지 대부분의 길이 나무계단으로 이어져 있어 제법 가쁜 숨을 추스르고 비지땀을 흘려야한다. 다행히 숲이 우거져 있어서 아직은 작열하는 태양빛은 피할 수 있다. 가을이 완전해지면 어여뻐 물든 단풍 길을 고즈넉이 걸을 수 있을 터이다.

정상에 도착하여도 조망은 거의 트이지 않는다. 오른쪽으로 난 길을 잡으면 석남고개를 지나 가지산으로 갈 수 있고, 왼쪽으로는 능동2봉을 지나 천황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내리막을 쭉 내려가면 쇠점골약수터에 먼저 도착한다. 쇠점골약수터는 수량이 풍부하여 땀을 식히고 갈증을 달래기에 충분하다.

약수터 아래에서는 임도 옆으로 난 산길을 선택해야 능동2봉에 오를 수 있다. 그 즈음부터는 조망이 트이기 시작한다. 가지산-백운산-운문산으로 이어진 영남알프스의 또 다른 능선과, 그 아래 얼음골까지 조망되고, 그 풍경이 연결되어 천황산-재약산 그리고 배내골을 지나 영축산-신불산-간월산으로 이어지는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역새로 우거진 길을 헤치고 나아가면 잠시 후 헬기장 전망터에 도착하고, 그러면 시야는 더욱 광활하게 트인다.

임도에 내려 선 후, 가을의 정취를 더 즐기고 싶다면 임도를 걸어 역새평원이 펼쳐진 샘물산장까지, 나아가 천황재-천황산-재약산까지 갈 수 있다. 덤으로 황금빛 물결치는 역새의 바다에 풍덩 빠질 수도 있다. 뒤를 돌아 임도를 걸으면 쇠점골약수터를 지나 배내고개로 원점회귀 하는 길이다.





배내봉

● 배내봉 가는 길

배내고개-아람약수터-오두산 갈림길-배내봉-다시 배내고개로 원점회귀

능동산을 다녀온 후 다시 배내고개에서 반대쪽으로 난 길을 오르면 배내봉에 갈 수 있다. 거리가 가깝고 험한 길은 없으나 대부분이 계단식으로 된 제법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이다. 중간쯤 돌멩이에 손글씨로 이름이 적힌 아람약수터를 지난다.

오름길의 끝은 오두산 갈림길이다. 이후에는 경사가 거의 없는 능선을 따라 지척에 있는 배내봉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 점차 영글고 익어가는 억새풀이 일렁이거나 나풀거리는 풍경이 펼쳐진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시원하게 탁 트인 조망도 만날 수 있다. 사방으로 영남알프스의 대부분의 봉우리를 볼 수 있다. 더하여 동쪽으로 아스라하게 동해바다의 물빛이 청명한 하늘과 동화되어 보인다.

정상에서 계속 나아가면 간월산을 지나 신불산 영축산까지 갈 수 있고, 뱃달산을 지나서 그 이름도 으스스한 저승골로 하산할 수도 있다. 정상 전 갈림길에서 오두산 방향으로 산행을 이어가면 문필봉을 넘어서 산행을 마칠 수 있다.

다시 배내고개로 돌아오는 길. 문득 진한 아쉬움 같거나 그리움 같은 여운이 남는다. 만월이 뜨는 가을밤 고요한 걸음으로 배내봉을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부디 그리하시라고 달오름길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은 아닐까……. 



우리 부서를 소개합니다 | 네번째

임상의학연구소 *Clinical Research Center*

임상의학연구소(Clinical Research Center)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연구 역량을 통합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임상시험센터, 임상연구보호센터, IRB 사무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행정·윤리·실무 지원을 제공하고,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며,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병원 내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임상의학연구소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센터(Clinical Trial Center, CTC)를 소개합니다

임상시험센터는 우리 병원에서 수행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을 활용한 임상시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전문 부서입니다.

말 그대로 “환자 치료와 연구를 연결하는 중심 허브”로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새로운 치료법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센터의 주요 업무〉

분 야	내용
연구지원	임상시험을 시작하려는 연구자가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체결, 시험 진행, 연구비집행, 연구종료보고, 문서보관까지 전 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적·실무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관리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피험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배포하며, 사용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규정 준수 및 문서 관리	임상시험이 국내외 관련 법령 및 병원 내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며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모든 과정은 문서로 기록하여 점검 및 감사에도 대비합니다.

임상시험, 안전한가요?

많은 분들이 "임상시험은 위험한가요?"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시험은 매우 엄격한 법적 절차와 윤리적 기준 아래 운영되며, 모든 시험은 병원 임상시험 및 의학연구 윤리심사위원회(IRB)의 사전심의를 거쳐 승인받아야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센터는 환자 한 분 한 분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발적 동의 없이는 절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참여와 진료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진료에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환자가 참여하나요?

기존 치료에 반응이 부족하거나, 대안 치료가 필요한 환자, 새로운 치료제를 통해 회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분, 또는 특정 질환에 대해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인 경우 임상시험 참여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학 발전과 지역사회 환자들을 위한 길을 여는 소중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상연구보호센터(Human Research Protection Center, HRPC)를 소개합니다** ●
- 환자와 연구자를 잇는 윤리적 가교 -

임상연구는 의학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그만큼 연구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상연구보호센터(HRPC)는 바로 이 역할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체 대상 연구가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임상연구보호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내부점검(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관련 시스템 점검)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승인된 연구 및 시스템이 관련규정 및 윤리원칙,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하고 교정 및 예방활동을 안내하는 내부 점검(audit)을 수행합니다. 연구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 연구자 교육

관계 법령(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생명윤리법 등)에 따라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구자와 연구지원 인력이 윤리적 기준과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 헬프데스크 운영

연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험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합니다. 임상연구와 관련한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한 HRPC의 주요 업무입니다

● 임상시험관련 규정관리

누구나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HRPC는 병원 내 임상연구 관련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하고 관련법령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검토 수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지역량강화 심포지엄



교육간담회

앞으로의 방향

임상연구보호센터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연구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윤리적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병원 내 임상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IRB

● IRB란 무엇인가요?

IRB는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약자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타당한지를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승인하는 위원회입니다. IRB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원내/외 약 15인의 다양한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연구참여자의 권리,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 왜 IRB가 필요한가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는 의학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 연구대상자 보호
- 비윤리적 연구 예방
-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침 준수
- 학술지 게재 및 임상시험 승인 요건 충족



IRB 정규심의

● IRB는 어떤 일을 하나요?

IRB는 단순한 승인 절차를 넘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승인된 연구가 계획대로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수행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IRB - 보건복지부 인증

고신대학교복음병원 IRB는 2022년 보건복지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최초로 획득하였으며, 2025년 재인증까지 통과하여 현재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의 절차, 위원 구성, 운영 실적 등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 IRB 사무국 소개

IRB 사무국은 IRB 위원회를 보좌하여 위원회의 행정 운영과 심의 절차 전반을 전담하는 행정부서입니다. 연구자께서 IRB 심사를 원활히 받으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연구자와 IRB 위원회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IRB가 연구 전반의 모든 행정을 담당한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IRB는 'IRB 심의'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합니다. ➡



IRB 사무국 주요 업무

- IRB 제출 서류 사전 검토 및 접수
- 안건 준비 및 회의 운영 (회의 안건 준비,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 심의 결과 통보)
- 연구자·의뢰자 문의 대응 및 상담
- 과제 수행 점검 및 관리 (과제 진행 상태 점검, 중간/종료보고 관리)
- 위원 구성 및 자격 관리
- 법규 및 규제 대응 (관련 법규 및 규제 변화 대응, 실사 및 인증 대비)
- 규정 및 서식 관리 (SOP 및 각종 서식 관리)
- 문서 및 시스템 관리 (문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e-IRB 시스템 운영 관리)



New face
처음의 열정으로 고신에서 꿈을 펼치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부터 심장계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규 간호사 조성욱입니다. 아직도 첫 출근 날의 떨림이 생생한데,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의 하루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무겁게 흘러갑니다. 교대 근무로 하루를 시작하며 전날 환자의 상태를 인계받고, 활력 징후 확인, 각종 처치와 투약 준비, 기록 등을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중환자실 특성상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와 심전도 모니터링은 늘 필수이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주된 업무는 **환자 모니터링과 약물 투여, 기본 간호 처치, 그리고 의료진과의 협업을 통한 환자 대응**입니다.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지만,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은 없습니다. 그만큼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이 많고, 그래서 항상 더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사 이후 제가 가장 자주 하게 된 말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입니다. 바쁜 상황 속에서도 정확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중환자실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제 나름의 약속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확실히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사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도 많습니다. 책임감에서 벗어난 해방감도 있지만, ‘오늘 내가 잘했을까?’라는 끝없는 반성과 함께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메모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럴 땐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상을 틀어놓으면 조금은 다시 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입사 첫 주의 저는 늘 긴장 속에 있었고, 손이 떨려 약물을 준비하는 것도 버거운 신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침착해졌고, 환자의 상태 변화에도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도 이곳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매 순간이 도전의 연속이지만요.

누군가의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 견디는 이 일은, 매일 저를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단단해지고, 환자에게 따뜻한 간호를 실천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New face
처음의 열정으로 고신에서 꿈을 펼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8월부로 입사하여 수술실에서 근무 중인 박승정입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딛던 날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 생생합니다. 그런 제가 어느덧 수술실의 한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입사 당시에는 '누구에게도 누가 되지 말자'는 다짐이 가장 컸습니다. 가끔 모르는 것을 들킬까 봐 아는 척할지 고민한 적도 있지만, 수술실의 업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선생님들께 여쭙어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런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실은 조용하지만 동시에 매우 역동적인 공간입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 전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준비하고, 수술 중에는 팀과 호흡을 맞춰 수술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환자분이 입실하는 순간부터 퇴실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살피는 **튼튼한 조력자**입니다.

이중에서도 수술 전 이뤄지는 '타임아웃(Time-out)'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의료진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환자 이름, 수술 부위, 수술 명을 소리 내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인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이 짧은 시간이 혹시 모를 실수를 막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매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지막 확인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병원 생활의 첫 페이지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함께 입사한 동기들이었습니다. 낯선 업무에 놓고 싶은 날에도 서로의 부름에 기꺼이 응했고, 각자의 시선으로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낀 날에도 함께 애쓴 만큼 우리는 한걸음씩 '어엿한 수술실 간호사'로 자라났습니다.

앞으로 저는 지금보다 더 넓은 시야로 수술 현장을 바라보고,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조용하지만 든든한 손길을 건넬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받았던 가르침과 경험을 잊지 않고,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순간에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신뢰받는 간호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11월 입사하여 510병동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안태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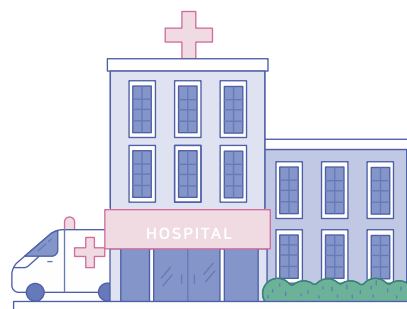
입사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익숙해지고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첫 출근 당시에는 긴장과 부담이 컸지만, 따뜻하게 챙겨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병동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간담체내과 병동에는 통증이나 불편함을 오래 안고 살아오신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작은 눈빛이나 말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지요. 처음에는 제가 조금 무뎠던 편이라 환자분들이 어려워하셨지만, 웃으며 인사를 먼저 건네니 서서히 마음이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바쁘더라도 눈을 마주치며 짧게라도 진심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단순한 '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생명과 아픔, 회복과 죽음을 가까이에서 마주하다 보니, 매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 하는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저에게는 하루가 평범하게 느껴질지라도, 환자에게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일 수 있기에, 그 안에서 작은 의미를 찾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작지만 분명합니다. **환자에게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간호사, 동료에게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1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안정감 있는 간호사로, 10년 뒤에는 후배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작은 손길과 태도가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환자 곁을 지키겠습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마음을 잊지 않고 성실히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 6월 ~ 2025년 8월

내원객이 칭찬해주신 우리 병원 친절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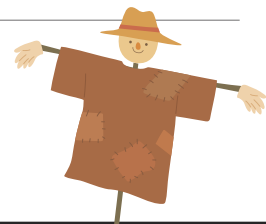
332병동 | 341병동 | 342병동 | 351병동 | 352병동 | 361병동 | 503병동 | 504병동 | 505병동 | 507병동 | 508병동 | 509병동 | 511병동 | MCU2 | NICU | Team Solde 찬양팀 | WOCN | 낮병동 | 미화부 | 자원봉사팀 | 성형외과 전담간호사 | 소화기내과 외래 | 신경과 외래 | 심장내과 외래 | 안과 외래 | 영양실 | 유방외과 외래 | 응급의료센터 | 정형외과 외래 | 주사실

강미나 간호사(위장관외과) | 강성은 간호사(352병동) | 강유진 전담간호사(혈액종양내과) | 강희원 간호사(361병동) | 강희원 임상병리사(채혈실) | 고경은 간호사(피부과) | 곽민채 간호사(332병동) | 구근영 사원(361병동) | 구남이 간호사(낮병동) | 구미연 간호사(331병동) | 권도형 물리치료사(재활치료실) | 권리에 간호사(낮병동) | 권영혜 중앙전문간호사(혈액종양내과) | 권윤구 주임(PACS실) | 김광철 임상병리사(채혈실) | 김구상 교수(유방외과) | 김명연 간호사(신장내과) | 김민경 간호사(유방외과) | 김민서 간호사(341병동) | 김민주 간호사(신경외과) | 김민화 간호사(산부인과) | 김보람 전담간호사(안과) | 김선경 주임(원무부) | 김선영 간호사(재활의학과) | 김슬기 간호사(352병동) | 김시은 간호사(507병동) | 김영나 간호사(류마티스내과) | 김영미 PA 간호사(정형외과) | 김명은 간호사(341병동) | 김영화 수간호사(342병동) | 김예슬 간호사(505병동) | 김옥순 간호사(361병동) | 김원복 여사(미화부) | 김유진 간호사(소화기내과) | 김유현 간호사(362병동) | 김윤정 간호사(503병동) | 김은선 전담간호사(혈액종양내과) | 김재현 교수(소화기내과) | 김정임 간호사(내분비내과) | 김정희 간호사(342병동) | 김정희 간호사(352병동) | 김지현 간호사(361병동) | 김천미 사원(원무부) | 김창수 교수(정형외과) | 김현민 간호사(351병동) | 김현정 간호사(352병동) | 김현정 간호사(362병동) | 김현지 간호사(361병동) | 김혜경 수간호사(351병동) | 김혜란 간호사(주사실) | 김혜원 간호사(361병동) | 김효진 PA 간호사(간담체내과) | 김효진 전담간호사(간담체내과) | 김희라 작업치료사(재활치료실) | 김희철 전담간호사(신경외과) | 나은서 간호사(342병동) | 남예은 간호사(방사선종양학과) | 노다는 간호사(WOCN) | 노다정 간호사(510병동) | 라보배 간호사(대장항문외과) | 류영주 간호사(508병동) | 마미경 간호사(간담체내과) | 마선영 교수(방사선종양학과) | 문예진 교수(대장항문외과) | 민근아 수간호사(508병동) | 박미선 간호사(507병동) | 박서영 간호사(351병동) | 박선경 간호사(509병동) | 박선미 간호사(소화기내과) | 박성달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 | 박아림 간호사(심장내과) | 박은지 간호사(509병동) | 박장미 간호사(361병동) | 박정숙 수간호사(352병동) | 박종빈 교수(피부과) | 박지선 간호사(362병동) | 박진형 교수(성형외과) | 박하민 간호사(352병동) | 박현준 교수(간담체내과) | 박효진 간호사(MCU I) | 배서영 간호사(507병동) | 배선훈 간호사(508병동) | 배지윤 간호사(509병동) | 서수림 간호사(507병동) | 서지환 사원(원무부) | 석정진 간호사(362병동) | 설연임 작업치료사(재활치료실) | 손미향 간호조무사(505병동) | 손성욱 방사선사(방사선종양치료

실) | 손우혜 간호사(510병동) | 손혜진 간호사(342병동) | 신금아 간호사(WOCN) | 신다양 간호사(주사실) | 신동훈 교수(간담체외과) | 신성훈 교수(혈액종양내과) | 신은유 간호사(352병동) | 신지인 간호사(509병동) | 심영주 교수(재활의학과) | 안준미 주임(원무부) | 안태현 간호사(510병동) | 양인자 수간호사(509병동) | 양혜원 간호사(신경외과) | 예영란 수간호사(341병동) | 오수정 간호사(362병동) | 오영도 교수(간담체외과) | 옥철호 교수(호흡기내과) | 왕해진 간호사(신경과) | 유승용 물리치료사(재활치료실) | 유영순 주임(직업환경보건센터) | 윤기쁨 간호사(525병동) | 윤소라 간호사(PRN) | 윤승희 상담사(보험청구창구) | 윤예림 간호사(낮병동) | 윤하영 간호사(505병동) | 이도는 간호사(342병동) | 이민진 간호사(방사선종양학과) | 이상 간호사(342병동) | 이소영 간호사(511병동) | 이소정 간호사(351병동) | 이순화 간호사(분만실) | 이승현 교수(대장항문외과) | 이승훈 교수(대장항문외과) | 이영주 간호사(510병동) | 이옥자 간호사(주사실) | 이은경 수간호사(332병동) | 이은미 교수(혈액종양내과) | 이은영 간호사(331병동) | 이은혜 간호사(조혈모세포이식치료실) | 이정민 간호사(소화기내과) | 이준환 간호사(362병동) | 이지민 간호사(알레르기내과) | 이지현 간호사(간담체내과) | 이재은 간호사(361병동) | 이한별 PA 간호사(유방외과) | 이해영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 | 이형신 교수(이비인후과) | 이혜리 간호사(351병동) | 이혜주 간호사(505병동) | 이호섭 교수(혈액종양내과) | 임미경 여사(미화부) | 임민주 간호사(PMN) | 임수진 간호사(361병동) | 임승희 간호사(소화기내과) | 임지수 간호사(내분비내과) | 장경주 간호사(방사선종양학과) | 장경희 간호사(정형외과) | 장보영 간호사(심장혈관흉부외과) | 장서윤 간호사(안과) | 장윤미 간호사(주사실) | 장정은 간호사(유방외과) | 전예라 간호사(주사실) | 전유리 간호사(이비인후과) | 전화평 간호사(507병동) | 정미경 간호사(352병동) | 정선미 간호사(352병동) | 정성의 교수(유방외과) | 정세영 간호사(PRN) | 정소학 교수(정형외과) | 정수는 간호사(510병동) | 정숙영 간호사(낮병동) | 정영선 수간호사(512병동) | 정윤정 PA 간호사(류마티스내과) | 정재령 전담간호사(재활의학과) | 정지는 간호사(510병동) | 정한송이 간호사(심장내과) | 정홍주 임상병리사(중앙의학연구소) | 조근희 간호사(재활의학과) | 조민주 간호사(낮병동) | 조은아 간호사(정신건강의학과) | 조희지 간호사(유방외과) | 좌연주 간호사(507병동) | 주해경 간호사(352병동) | 진자영 간호사(505병동) | 차태준 교수(심장내과) | 채진 계장(입퇴원계) | 최가는 간호사(361병동) | 최도연 간호사(PMN) | 최복연 수간호사(361병동) | 최빈나 간호사(안과) | 최영일 교수(간담체외과) | 최은정 주임(입퇴원계) | 최은지 간호사(혈액종양내과) | 최의택 임상병리사(직업환경보건센터) | 최정식 간호사(342병동) | 최중순 병원장 | 최진혁 교수(유방외과) | 최하영 PA 간호사(류마티스내과) | 추주희 간호사(방사선종양학과) | 하서영 간호사(508병동) | 한임경 간호사(이비인후과) | 한지훈 전공의(내과) | 함유경 간호사(간담체내과) | 허진 간호사(PRN) | 허태영 실장(재활치료실) | 홍유라 교수(소아정소년과) | 홍정순 주임(건강증진센터) | 황현정 간호사(이비인후과)



최근 3개월 병원에 비치된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고객님의 빠른 채용과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칭찬 한마디가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화합과 소통의 공간 '칭찬 릴레이'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서

환자와 병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료의 모습, 닮고 싶습니다. 칭찬합니다!
 일터를 사랑하고, 환자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폈던 초대병원장故 장기려 박사님
 제2의 장기려 박사님을 찾습니다! 칭찬릴레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바랍니다.

간담도췌장외과 · 이식외과
신동훈 교수님 추천

간담도췌장외과 · 이식외과 **최영일**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전공의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외과 주임 교수의 역할을 해내며, 간담췌외과와 이식외과의 중심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와 후배를 대하는 모습에 늘 감동받습니다. 앞으로도 큰 기둥이 되어 주시리라 믿고, 진심을 담아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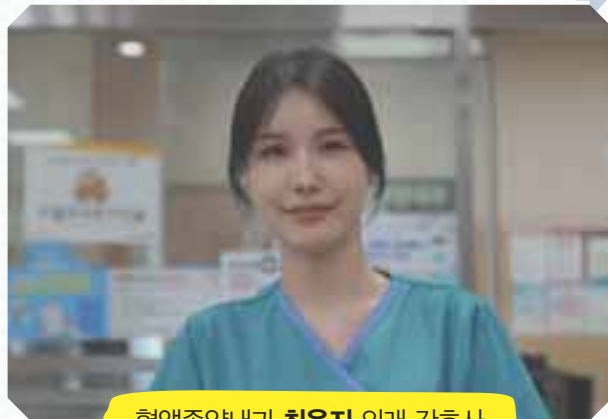


간담도췌장외과 · 이식외과 **최영일** 교수님

뜻밖의 자리에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환자와 동료들을 대하라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자리에 불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앙전문간호사 **권영혜** 책임간호사 선생님 추천

외래의 숨은 히어로, **최은지** 간호사님을 칭찬합니다.
 항상 바쁘고 정신없는 외래에서, 동시에 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주는 모습이 인상 깊어요.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업무를 척척 기억하고 빠짐없이 챙기는 모습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누구보다 꼼꼼하고 따뜻하게 환자들을 대하면서도, 항상 밝은 미소로 주변까지 환하게 만들어주는 예쁜 최은지 선생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혈액종양내과 **최은지** 외래 간호사

칭찬해 주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환경 속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따뜻한 격려 덕분에 큰 힘이 됩니다. 환자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알아봐 주셔서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우리 병원이 환자분들께 따뜻하고 신뢰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외래 간호사로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영선계 **남현욱** 선생님 추천

전기계의 **황정현** 기사님을 칭찬합니다. 원내 소방시설 관리 담당자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병원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 시설을 관리하시고, 화재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칭찬합니다. 전기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방 훈련과 교육 등의 원내 소방 담당자로서 책임감 있게 일하시는 모습에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전기계 **황정현** 기사님

추천해 주신 남현욱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지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 제게 이번 칭찬 릴레이는 뜻밖의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책임감 있게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흉부외과 외래 **장보영** 책임간호사 추천

진료협력센터의 **주영숙**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상급병원에 처음 오시는 환자분들과 퇴원 후 연고지로 전원하는 환자분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봐주시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응대해줍니다. 항상 밝게 웃는 모습으로 환자들과 보호자를 대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의 행동을 되돌아봅니다. 한결 같은 모습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진료협력센터 **주영숙**

소중한 칭찬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저희 센터장님과 직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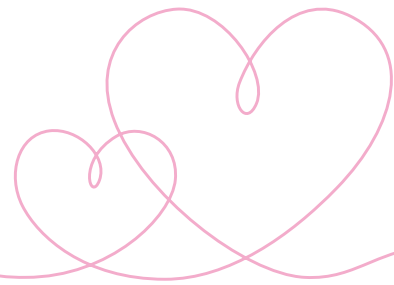


To be continued 겨울호에서 계속됩니다 💖





KOSin 사랑in



Jang Gee-Ryeo Memorial Center for Medical Mission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Jang Gee-Ryeo Memorial Center for Medical Mission, JMCM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의료를 통한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의 부속 기관으로, 의료선교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 및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생을 사랑과 봉사, 청빈한 삶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헌신하신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님(1911~1995)의 정신을 이어받아, 참 의사이자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의료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2025년 활동

1. 의료선교후원을 위한 미니 바자회

기간: 2025.05.15.(목) ~ 2025.05.16.(금),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정문 주차장

협력: 교직원선교회, 감천제일교회, 감천중앙교회

2025년 해외의료선교

1. 태국 깐짜나부리 해외의료봉사

2025.07.17.(목) ~ 2025.07.23.(수), 참여인원 21명

■ 태국 진료 일정

순	날짜	내용
1	7월 19일(토)	웅씨교회, 롬마이 교회
2	7월 20일(일)	햇댕호수 교회
3	7월 21일(월)	반마싸요 교회

■ 태국 진료과목 및 인원

과목	인원	과목	인원	과목	인원
소화기	12	순환기	16	호흡기	16
내분비	9	신경정신과	13	피부과	17
정형외과	110	소아과	6	가정의학과	17
안과	20	이비인후과	4	기타	6
총 진료인원			255명		



2. 남아프리카공화국·에스와티니 해외의료봉사 : 칼레오 KALEO: “하나님의 부르심”

2025.08.07.(목) ~ 2025.08.17.(일), 참여인원 84명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스와티니 진료 일정

날짜	날짜	에스와티니	
8월 7일(목)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반석교회		
8월 8일(금)	Grace Fellowship Church Vaalbank		
8월 9일(토)	Vaalbank Church		
8월 10일(일)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8월 11일(월)		음바바네병원 수술환자 사전진료	음바바네병원 보건교육 및 전도사역
8월 12일(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음바바네병원 유방 갑상선 혈관수술	에스와티니 기독교대 글로벌 심포지엄
8월 13일(수)			
8월 14일(목)			에스와티니 기독교대 신앙강좌



■ 참여·협력·후원 문의: 장기려기념 의료선교센터 (051) 990-5775

“항상 그랬다”

라는 응답은
의료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랬다”
33~67점



“항상 그랬다”
68~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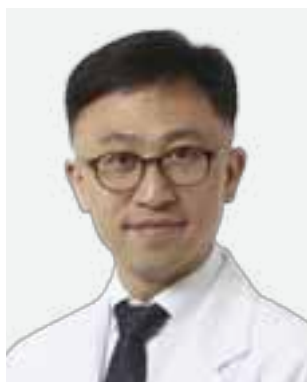
여러분의 “항상 그랬다”가 더 친절한 진료,
더 편안한 병실, 더 나은 병원을 만듭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환자만족과 더 나은 경험을 위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 진료를 시작합니다 ●



서광일 교수 | 간담췌내과

전문진료분야 |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클리닉	외래		외래	
오후		외래		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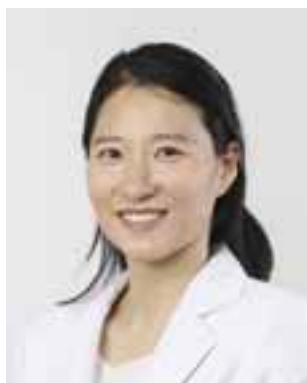
*해외연수 후 진료재개



김신동 교수 | 안과

전문진료분야 | 망막, 일반안과질환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오후					외래



최길순 교수 | 알레르기내과

전문진료분야 |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구분	월	화	수	목	금
오전		외래			
오후		외래			외래

*해외연수 후 진료재개



외래진료시간표

2025년 9월 기준

※ 대표전화 ☎990-6114, 991-0675, 응급의료센터 ☎990-6119

※ 진료문의는 ☎990-6114,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오전	오후	전문의료분야
가정의학과	최 중 순	화	월, 목	비타민 고용량요법, 암의 보완통합요법, 노인의학, 특이증상클리닉(자율신경 실조증), 만성피로클리닉
	공 은 희	월, 수, 목	수	비만, 임상영양, 금연, 기능의학
	강 지 훈	해외연수		근골격계 통증클리닉, 자율신경주사, 만성두통, 암 경험자 평생 건강관리, 성인예방 접종, 금연클리닉, 유전체기반 비만 클리닉, 만성피로클리닉, 노인의학
	김 미 수	금	월, 화, 금	가정의학과 일반진료, 금연, 비만, 예방접종
간담도췌장외과 · 이식외과	신 동 훈	월, 목	월	간, 담도, 췌장, 이식외과
	최 영 일	화, 금	화	간이식, 간담도, 혈관, 간담췌클리닉
	문 형 환	수	수, 목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화귀질환 클리닉 : 매주 수요일 오후
	조 지 훈	수	화, 금	간, 담도, 췌장, 이식, 혈관
간담췌내과	이 상 국	월, 수	월, 수	간, 담도, 췌장 질환(간암, 간경화증, 급, 만성 간염)
	서 광 일	화, 목	화, 목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이 정 옥	월, 수, 금	목	췌장 · 담도계 질환 (담석증, 담낭염, 담관염, 담관암, 급 · 만성 췌장염, 췌장암, 췌장낭종)
	조 수 민	화, 목, 금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간부전, 간이식
감염내과	진 술	수		감염내과 일반진료
	이 수 진	월, 화	목	감염내과 일반진료
내분비내과	김 부 경	화	월, 수	비만,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뇌하수체, 부신
	박 성 우	월, 수, 목	화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박 대 훈	화, 금	월, 목, 금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뇌하수체, 부신
대장항문외과	안 병 권	화, 목		대장암, 직장암, 대장직장클리닉
	이 승 현	월, 수	월, 수	대장암, 직장암,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이 승 훈	금	화, 금	대장암, 직장암,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문 예 진		목	대장항문외과 일반진료
두경부갑상선 내분비외과	김 구 상	수, 금	화	로봇갑상선수술(경구, 액와), 갑상선암, 고주파열치료, 조직검사, 세침검사, 고주파열치료클리닉 ※ 금 오전 격주 진료
류마티스내과	김 근 태	수, 금	월, 화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 관절초음파 클리닉, 화귀질환 클리닉 : 매주 금요일 오전
	김 윤 경	월, 목	수, 금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 통풍,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육통, 혈관염, 베체트병, 관절 초음파클리닉, 화귀질환 클리닉 : 매주 금요일 오후
마취통증의학과	류 시 정	월, 목		통증관리
	김 두 식	화	화	통증기전연구, 만성통증치료, 암성통증관리
	강 동 희	금	금	급만성통증의학, 암성통증, 부위마취, 대사비만수술마취, 신체감정
	김 지 옥	수	수	통증관리, 중환자의학, 뇌신경마취, 산과마취
방사선종양학과	박 경 란	수, 목	화, 목	유방암, 간담췌암, 뇌종양, 방사선수술
	마 선 영	화, 수	월, 수	유방암, 부인과종양, 허부소화기종양
	유 제 상	월, 화, 금	화, 금	두경부암, 폐암, 흉선암, 식도암, 비뇨기암, 림프종, 혈액암, 피부암, 근골격계종양, 특수방사선치료, 고식적방사선치료
비뇨의학과	류 현 열	월, 수		요로종양, 전립선, 신장이식, 종양클리닉
	최 성	화, 목	월, 목	전립선, 여성비뇨기, 종양, 전립선클리닉, 요실금클리닉
	김택상	월, 수	수	비뇨기종양, 로봇수술
	강 수 환	화, 목	화	로봇수술, 비뇨기암, 결석
산부인과	이 태 화	월, 수, 목	월	부인암, 내시경수술, 부인종양
	오 영 립	월, 목	월	고위험 임신, 조산
	윤 항 구	화, 금		모태태아의학, 고위험 임신, 조산, 산부인과 질환 로봇 수술센터
	강 대 경	수, 목	목	일반 부인과 질환, 부인과 내분비학
성형외과	김은택	화, 금	수	부인질환(심부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난소종양, 자궁탈출증), 부인종양, 부인암, 부인암 유전상담, 폐경, 로봇수술, 내시경수술(부인암 분과전문외)
	박 진 형	월	월, 수	유방재건, 미세수술, 미용
	이 형 석	수, 금	수	피부암, 유방재건, 두경부재건, 눈성형, 소아성형, 당뇨발, 욕창
	김 윤 수	화	화, 목	유방재건 및 유방성형, 체형성형, 미용/흉터 성형, 피부종양, 안면골절
소아청소년과	홍 유 라	목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예방접종
	이 정 현		월, 수, 목	성장클리닉(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대사질환(고신장, 사춘기 지연, 갑상선질환, 당뇨병, 저혈당, 비만, 갑상 및 인 대사 장애, 기타 영양 장애)
	연 규 민	화, 수	금	소아신경질환(뇌전증, 편두통, 발달지연, 뇌염, 뇌수막염, 신경근질환, 열성경련)
	공 섬 김	월, 목, 금	화	소아혈액종양질환(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지반증, 출혈성질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소화기내과	최 소 윤	해외연수		소아소화기영양분과 (소아소화기질환(위장관, 간담췌장), 소아염증성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영양 질환, 비만, 저체중, 소아위장관내시경)
	박 선 자	월, 수	월, 화	응급(선종) 종양의 내시경적 시술, 소화기암, 진행성암환자 항암치료,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캡슐, 소장, 위 및 대장의 상비하행내시경조음), 위장관 말초림프종, 기능성소화불량, 과민성장증후군, 소화성 궤양
	박 무 인	월, 목, 금	수	성경매, 이빨라지(식도인물증), 내시경 근형술(POEM, POET), 위도역류질환, 기능성소화불량, 변비, 과민성장증후군, 소화성 궤양, 헬리코박터 및 상부소화기질환, 소화기암, 진행성암환자 항암치료,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캡슐, 소장, 위 및 대장의 상비하행내시경조음), 위장관 말초림프종, 과민성장증후군, 소화성 궤양
	문 원	화, 목	화, 목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베체트장염
	김 성 은	화	수, 목	위, 식도, 십이지장의 용종(선종) 종양의 내시경적 시술, 식도인물증, 내시경 근형술(POEM), 위식도역류질환,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 관련질환(위말트림프종포함), 위루술
	김 재 현	금	월, 수	대장암 클리닉,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캡슐, 소장), 용종(선종) 종양의 내시경적 시술(대장폴립절제술위주), 유전성 대장폴립증후군, 대변이식치료, 기타 소화기질환
	정 경 원	화, 수, 금		치료 내시경(조기 식도암, 조기 위/대장암), 아달라지아(POEM), 위암, 식도암, 용종, 기능성 소화기질환
	이 명 훈		월, 목, 금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일반 소화기 진료
	최 윤 정	수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소화성궤양, 용종
	손 민 영	목		검사목적의 내시경(위, 대장), 소화성궤양, 용종
신경과	유 봉 구	월, 화, 수	화	뇌졸중, 치매, 두통, 뇌졸중·치매 클리닉
	김 명 국	수, 목	월, 화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
	김 민 정	금	금	파킨슨병, 이상운동질환, 파킨슨병클리닉
	이 진 형	화, 금	화	뇌졸중, 뇌혈관질환, 신경증재치료
	허 소 영			근전도검사
	전 병 준	목	월, 수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말초신경병, 근육병, 화귀질환 클리닉 : 매주 목요일 오전
	나 주 영	월	수, 목	두통, 어지럼증, 치매
	조 혁 래	월, 수	월	뇌종양, 두개저종양, 심차신경통, 안면경련
신경외과	박 정 현	해외연수		뇌혈관 중재적 수술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김 도 연	월	월, 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위증, 척추종양, 척추변형, 두부외상, 척추외상
	심 용 우	수, 금	수, 금	뇌혈관질환, 뇌종양, 뇌혈관중재치료,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이 학 수	화, 목	화, 목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혈관내 수술, 급성 뇌경색 신경증재치료, 지발성 뇌출혈, 외상성 뇌출혈, 신경계 중환자치료



외래진료시간표

2025년 9월 기준

※ 대표전화 ☎990-6114, 991-0675, 응급의료센터 ☎990-6119

※ 진료문의는 ☎990-6114, 진료예약은 990-69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료과	교수명	오전	오후	전문의료분야
신장내과	임 학	월,수,목	수	신장질환, 사구체질환, 신증후군, 만성신부전(만성콩팥병),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생체이식, 혈액형불일치이식, 뇌사이식)
	정연순	화,목	화,목	다낭콩팥병클리닉,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급성신손상, 당뇨병성콩팥병, 사구체신염(혈뇨, 단백뇨), 요로감염, 다낭콩팥병클리닉: 매주 목요일 오후
	신호식	월,수	월,수,목	신장이식, 투석, 신부전, 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콩팥병, 노인성 콩팥질환, 요로감염, 신장이식클리닉:매주 금요일 오전
	김예나	화,금	월,화	신장질환
	양우식		금	신장질환
심장내과	차태준	월,화,금	월,화,목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임상심장전기생리학, 침습적심장학, 세포심장학
	허정호	월,수,목	화	심혈관 중재시술,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심장재활, 부정맥, 흉통클리닉, 고혈압클리닉
	임성일	월,수,목	수	부정맥, 급사 및 실신,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
	김봉준	금	월,화,목	심부전, 폐고혈압
	김수진	화,목	수	순환기, 심장조음파,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심부전, 협심증, 여성심장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성달	월,목		일반흉부, 폐암, 종격동종양
	김종인	화	월,화	일반흉부, 폐기종, 기흉,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다한증, 흉부외상, 하지정맥류
	조성호	수	화,수	성인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이해영	월,목	월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정맥질환, 흉부외상, 성인심장질환, 체외막산소화장치, 하지정맥류
	고택용	금	수,목	폐암, 종격동종양, 흉강경 및 로봇수술
안과	이상준	화,목	월	망막, 포도막, 백내장, 안외상, 눈물길, 유리체망막클리닉, 포도막염클리닉
	이승욱	월,수	목	녹내장, 백내장, 각결막질환
	김창주	금	화,수	사시, 소아안과, 신경안과, 안종양, 안외상, 눈물길, 근시
	김신동		금	망막, 일반안과질환
	이승하		수,목,금	신생아 망막, 일반안과
알레르기내과	김희규	월,수,목	월,목	만성/침, 기관지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알레르기, 급만성 두드러기, 혈관부종, 접촉성 피부염, 약물 알레르기, 호산구증가증, 각종 알레르기 질환, 면역결핍질환
	최길순	화	화,금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오지현	금	화,수	만성기침, 천식 및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두드러기, 약물 알레르기 및 각종 알레르기 질환, 호산구 관련 질환 등
	정원길	월,화,수,목		호스피스 완화의료
완화의학과	공성길		월	소아혈액종양질환(백혈병, 림프종, 고형종양, 혈관종, 골수부전, 조혈모세포이식, 빈혈, 혈우병, 자반증, 출혈성질환),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윤기영	월,목	월	위장,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서경원	화,수	화	비만대사수술, 위암수술, 탈장수술, 외과대사영양학
	김기현	해외연수		복강경 위장관 수술(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비만대사수술
위장관외과	김윤홍	금	수,목,금	복강경, 위암, 위장관 기질 종양, 비만대사수술
	정성익	화,목	화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Young age 유방암, 유방양성질환
	김구상	월	월,목	로봇유방암수술, 유전성 유방암, 입체정위생검, 유방암 경험자 클리닉
	최진혁	수,금	수	유방암, 로봇유방수술, 입체정위생검, 유방양성질환
응급외과	정주원		화	응급외과
	김영식		수	응급외과
이비인후갑상선 두경부외과	이강대	월,목,금		갑상선 수술, 부갑상선 수술, 신경모니터링 수술
	권재환	수,금	화	중이수술, 난청, 이명, 어지럼증, 귀의 염증, 성형성 중이염, 고막질환, 소아 귀 질환, 인공와우이식, 선천성 이개질환, 귓볼 헬로이드, 중이 전주증 비파: 축농증, 비성형, 안면재건, 인와골절, 비골골절, 코피, 산재 특별 진찰
	이형신	월,수	화	두경부 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성대 보톡스, 성대 필러
	김주연	화	월,목	부비동 내시경 수술, 코성형술,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질환, 코골이, 알레르기, 수면 무호흡증, 코피, 코성형 클리닉
	김영준	화	수,금	두경부 종양(구강암, 비인두암, 후두암, 설암, 갑상선암, 침샘암, 이하선암), 인후통, 편도, 성대, 혀바늘, 임파선 비대, 목의 혹, 입술
	서윤수		금	이비인후 갑상선 두경부외과 일반질환
재활의학과	심영주	목	월,수,목	소아재활, 림프부종 재활, 근골격계 질환, 입재활
	김호찬	목	월,수	공황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치료, 재발방지클리닉 및 낮병동(조현병, 기분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신	월,수,금		자문조정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암환자 정신건강 클리닉
	김현석	화,목	화	소아청소년과 정신의학(ADHD, 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소아청소년 기분장애/불안장애 등)
	전공의	월,수,금	월,수,금	정신건강의학과 일반진료
	권영호	월	수	수부, 주관절, 흉곽출구증후군
정형외과	전소하	화,목		근골격계종양, 고관절, 대퇴부
	김창수		월,수,목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척추질환, 척추종양, 척추측만증을 포함한 척추기형, 척추외상
	김지연	해외연수		족부(발, 발목) 질환 및 외상, 당뇨발 및 창상(고압산소치료)
	심대무	월,수,목,금	화	척추질환, 척추 비수술적 치료
직업환경의학과	김정원		월	신경독성학, 직업성 알레르기 질환(천식, 피부), 직업성 암, 직업병 산재보상, 업무적합성 평가
	정지현	화,금	화,금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배현숙	월,목	월,목	직업성질환, 특수건강진단,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오현철	월	화	근골격계 산업재해 특별진찰,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관련성평가
치과	김희진	목	월,화,목	치과보존과
	서고은	화,수,금	금	구강악안면외과 일반질환(구강내 종양, 감염, 외상, 임플란트, 매복치, 턱관절 질환 및 기타 치과 질환)
	강은숙	화,수,금	화	치과 보철과 일반질환
	김민경	월,목	수,목	치주과 일반진료
피부과	우혜문	월	월,수,금	치과보존과 일반진료
	장민수	월,수	월,수	여드름/주사, 건선, 손·발톱색소질환
	박종빈	화,목	화,목	피부종양, 피부암, 알레르기피부질환
	서기석	화,금	금	피부암, 무좀 및 진균성질환, 모발질환, 수포성질환 및 결체조직질환, 혈관질환
해의학과	성설화	연수		피부가려움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피부질환, 백반증, 건선
	김희영		월	해의학과 일반진료
	김범수		수	해의학과 일반진료
혈액종양내과	신성훈		월,화,수,목,금	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폐암, 간담도암, 유방암, 비뇨기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이호섭	화,수,목	월,화	다발골수증, 악성림프종, 급성백혈병, 만성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암 및 혈액질환
	이은미	수,목	월,목	위암, 대장암, 유방암, 담낭암, 췌장암, 난소암, 자궁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김다정	해외연수		림프종, 다발성 골수증,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암 및 혈액질환
호흡기내과	정만홍	금	화	폐암, 천식, 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태원	월,수,목	수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옥철호	화	수,목,금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폐렴, 만성폐쇄성 폐질환
	김대화	화		중증 호흡기 감염질환, 호흡부전, 중환자 호흡재활
	김대윤		월	호흡기내과 일반진료



초대병원장 **장기려** 박사

우리는 그를
아름다운 의사라 부릅니다.
마음까지 치료한 의사라 부릅니다.
의로운 의사라 부릅니다.
바보의사라 부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를 닮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뜻을 살려 헌신하길 원하는
백년의 약속

우리는 그를 존경하며 오늘도
전인치유를 실천 합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발전기금 바로가기